

LG디스플레이, OLED 사업 적극화

OLED 사업부문 신설해 조직 일원화 ... 여상덕 부사장 사업부장 임명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사업에 힘을 신는다.

LG디스플레이는 12월15일자로 OLED 사업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최고기술책임자(CTO) 산하에 있던 OLED 개발담당과 TV 사업부문 소속이었던 OLED TV 사업담당 등 흩어져 있던 OLED 관련조직을 한곳으로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OLED 사업부문은 앞으로 LG디스플레이의 OLED 연구개발(R&D)부터 생산과 영업까지 모든 관련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OLED 사업부장은 정기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여상덕 CTO(사장)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TV 사업부장인 황용기 부사장과 IT·모바일사업부장인 정경득 전무 등의 직급을 고려하면 사장급 사업부장을 앞쳐 OLED 사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여상덕 사장은 TV 사업부장과 모바일·OLED 사업부장을 지낸 디스플레이 기술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관련조직을 묶어 사업부를 출범시키는 것은 OLED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12/08>